

※ 본 추록은 기존 신국어에서 삭제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수업 수강에 필수적인 일부 내용만 올립니다.

1편 문법과 어휘

p.16. [예제 02] [A]와 [B]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 법원직]

[A] 복면[봉면], 받느[만느], 잡목[잠목]

[B] 난로[날로], 권리[켈리], 신라[실라]

- ① 앞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앞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③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④ 뒤에 오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다.

• 해설: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 개념을 배경지식으로 갖춰야 온전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

[A]는 비음화, [B]는 유음화에 해당한다. [A]는 파열음 예사소리(ㄱ, ㄷ, ㅂ)가 비음(ㅇ, ㄴ, ㅁ)으로 바뀌었고, [B]는 비음(ㄴ)이 유음(ㄹ)으로 바뀌었다. 파열음, 비음, 유음 등은 조음 방법에 의한 구분이다.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법만 바뀐 것이다.

또한 모두 뒤 자음의 앞 자음에 영향을 미쳐 자신과 같거나 유사하게 바뀌도록 한 역행동화에 해당하므로 ④번이 정답이 된다.

• 정답: ④

p.19. [예제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법원직]

< 보 기 >

음운의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 네 가지 변동 중 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음운이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을 겪기도 한다.

- ㉠ 꽃잎[꼴닙] ㉡ 만며느리[만며느리]
- ㉢ 달혔다[다철따] ㉣ 넓죽하다[넙쭈카다]

- ① ㉠~㉢은 모두 음운이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다.
- ③ ㉢에서는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에서는 음운의 탈락과 축약이 일어난다.

• 해설: <보기>의 배경지식을 알고 있다면 바로 ㉠~㉢의 음운 변동을 확인해도 된다.
음운의 변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꽃잎[꼴닙]꼴닙 →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ㄴ첨가(첨가)
- ㉡ 만며느리[만며느리] → 비음화(교체)
- ㉢ 달혔다[다철따]다철따 → 자음축약(축약), 음절의 끝소리규칙(교체), 구개음화(교체), 된소리되기(교체)
- ㉣ 넓죽하다[넙쭈카다] → 자음군 단순화(탈락), 된소리되기(교체), 자음축약(축약)

② ㉡은 첨가가 있지만 ㉣은 없다.

• 정답: ②

p.27. [예제 04] <보기>의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법원직]

< 보 기 >

하나의 단어는 보통 하나의 품사 부류에 속한다. 하지만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런 단어는 사전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대회에 참가했다.”에서의 ‘다섯’은 수사이지만 “마라톤을 좋아하는 다섯 사람이 대회에 참가했다.”에서의 ‘다섯’은 관형사이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처리되는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 ① 나도 철수만큼 잘할 수 있다.
각자 먹을 만큼 먹어라.
- ② 뉴스에서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고 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시작합시다.
- ③ 어느새 태양이 솟아 밝은 빛을 비춘다.
벽지가 밝아 집 안이 환해 보인다.
- ④ 키가 큰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을 주었다.
철수야,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

해설: 품사 구별 문제이다. ㉠의 ‘밝은’, ‘밝아’는 모두 형용사이다. ‘밝다’가 동사일 때는 밝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만 해당되고 나머지의 경우는 형용사이다. 여기에 쓰인 것, 즉 ‘불빛 따위가 환하다’거나(전자),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후자)의 경우나,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등은 모두 형용사이다.

[오풀]

- ① 체언 ‘철수’ 뒤에 붙은 ‘만큼’은 조사이고, 용언의 관형사형 ‘먹을’ 뒤에 온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 ② ‘오늘’, ‘내일’ 뒤에 (격)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조사 없이 다른 부사나 용언(‘시작합시다’)을 꾸며 주면 부사이다.
- ④ 전자와 같이 상태 ‘크다’는 형용사이고, 자라다 의미를 지닌 후자 ‘크다’는 동사이다.

정답: ③

p.37. [예제 07]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 법원직]

< 보 기 >

파생어는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때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형성될 때 ㉡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① 오늘따라 저녁노을이 유난히 새빨갳다.
- ② 아군의 사기를 높여야 승산이 있습니다.
- ③ 무엇보다 그 책은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
- ④ 나는 천천히 달리기가 더 어렵다.

• 해설 : ㉠은 접미사를 의미하고, ㉡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미사를 가리킨다. ②에서 밑줄 친 어휘의 기본형은 '높이다'이다. 이는 '높다'(형용사)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높이다'(사동사)가 된 것으로, 접미사에 의해 품사가 '형용사→동사'로 전환되었다.

[오답]

- ① '빨갳다'(형용사)에 접두사 '새-'가 결합된 경우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 ③ 기본형은 '읽히다'이고, '읽다'(동사)가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피동사 '읽히다'가 되었다. 피동사도 동사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달리기'가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나는 천천히 달린다'와 같이 주어, 부사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의 명사형으로 품사는 동사이다. 즉 '-기'는 명사형 어미이므로 ㉠과 ㉡ 모두 해당하지 않는 예이다.

• 정답 : ②

p.42. [예제 011]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법원직]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 ① 자립형태소는 5개이다.
- ② 의존형태소는 9개이다.
- ③ 실질형태소는 8개이다.
- ④ 7개의 어절, 19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해설 : 형태소의 개념과 유형, 어절, 음절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문을 형태소로 나누면 총 15개이다.

눈(명사)/이(조사)/ 녹(어간)/으면(어미)/ 남은(어간)/은(어미)/ 발(명사)/자국(명사)/ 자리(명사)/마다(조사)/ 꽃(명사)/이(조사)/ 피(어간)/리(선어말어미)/니(어말어미)

- ② 의존형태소(조사, 용언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미, 접사)는 10개(이, 녹-, -으면, 남-, -은, 마다, 이, 피-, -리-, -니)이다. '-리-'는 추측의 선어말어미에 해당한다.

[오답]

- ① 자립형태소(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5개(눈, 발, 자국, 자리, 꽃)이다.
- ③ 실질형태소(자립+어간)는 8개(눈, 발, 자국, 자리, 꽃, 녹-, 남-, 피-)이다.

• 정답 : ②

p.37. [예제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 법원직]

< 보 기 >

- ㉠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 한밤중에 그가 나에게 전화 할 줄 몰랐다.
- ㉢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을 테니 선생님만큼만 공부하길 바란다.
- ㉣ 형님께는 햇사과를, 동생에게는 햄쌀을 선물로 보냈다.

- ① ㉠ :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하나의 단어이다.
- ② ㉡ :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
- ③ ㉢ :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쓰일 수 없고 형식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 ④ ㉣ :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인 뜻을 갖는다.

• 풀이 : ㉡의 조사 '을/를'은 문법적인 뜻을 지닌 형식형태소로 앞 음절이 모음이면 '를', 자음이면 '을'이 쓰이므로 음운 환경에 따라 모습 바뀐다.

[오답]

- ① 여기서 '다른'은 관형사이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없다'는 형용사이므로 어간과 어미의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것은 조사를 의미한다. '한-'은 접두사이므로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줄'은 의존명사로써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다른 말의 수식을 받는다.
- ③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쓰일 수 없는 형태소는 의존형태소를 가리킨다. 조사, 어간, 어미, 접사 등에 해당된다. 형식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형식형태소로 조사, 어미, 접사가 해당된다. 뒤에 쓰인 '만큼'은 조사라서 적절한 예이지만, 앞의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p.47. [예제 01] <보기>를 바탕으로 아래 ㉠~㉣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법원직]

< 보 기 >

문장 성분은 문장의 주된 골격을 이루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에는 부사어, 관형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 ㉠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 ㉡ 그는 친구의 딸을 머느리로 삼았다.
- ㉢ 앓, 영희가 뜨거운 물을 옆질렀구나!

- ① ㉠~㉢은 모두 관형어가 존재한다.
- ② ㉠~㉢의 주성분의 개수가 일치한다.
- ③ ㉠의 부속성분의 개수는 ㉡, ㉢보다 많다.
- ④ ㉡은 ㉠과 달리 필수적 부사어가 존재한다.

• 해설 :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 아이가(주어) 작은(관형어) 침대에서(부사어) 예쁘게(부사어) 잔다.(서술어)
- ㉡ 그는(주어) 친구의(관형어) 딸을(목적어) 머느리로(필수 부사어) 삼았다.(서술어)
- ㉢ 앓(독립어), 영희가(주어) 뜨거운(관형어) 물을(목적어) 옆질렀구나!(서술어)

- ② ㉡의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2개이고, ㉠과 ㉢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3개

이다.

[오풀]

- ① ㉠은 '작은', ㉡은 '친구의', ㉢은 '뜨거운'이 관형어이다.
 ③ ㉣의 부속성분은 '작은(관형어)' '침대에서(부사어)' '예쁘게(부사어)' 3개이고, ㉤은 '친구의(관형어)' '머느리로(부사어)' 2개, ㉥은 '뜨거운(관형어)' 1개이다.
 ④ ㉦은 부속성분이 모두 필수 성분이 아니어서 '아이가 잔다.'로 완전한 문장이 되지만, ㉧의 서술어 '삼다'는 앞에 필수 부사어(여기서는 '머느리로')가 와야 한다.

• 정답 : ②

p.49. [예제 02]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법원직]

< 보 기 >

- 나는 ㉠ 동생이 산 사탕을 먹었다.
- ㉡ 철수가 산책했던 공원은 부산에 있다.
- 민경이는 ㉢ 숙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 지금은 ㉤ 학교에 가기에 늦은 시간이다.

- ① ㉠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② ㉡은 안은문장의 주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③ ㉢은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④ ㉤은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해설 : ㉡ '철수가 산책했던'은 안은문장의 주어 '공원을'을 수식해 주는 관형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적어 '공원을'이 생략된 관계관형절이다.
 [오풀]
 ㉠, ㉡은 관형절, ㉢, ㉤은 명사절이다. ①, ③, ④는 모두 바르게 설명하였다.

• 정답 : ②

p.50. [예제 03] 다음 ㄱ~르를 통해 인용절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2 법원직]

- ㄱ. 성민이 승아에게 “밥을 먹거라”라고 말했다.
 / 성민이 승아에게 밥을 먹으라고 말했다.
 ㄴ. 성민은 “나는 승아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 성민은 자기가 승아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ㄷ. 성민은 승아에게 “먼저 들어갑시다”라고 말했다.
 / 성민은 승아에게 먼저 들어간다고 말했다.
 ㄹ. 성민은 어제 “오늘 떠나고 싶어”라고 말했다.
 / 성민은 어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 ① ㄱ을 통해 직접인용절에서 사용된 명령형 종결 어미가 간접인용절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ㄴ을 통해 직접인용절에 사용된 인칭대명사는 간접인용절에서 지시대명사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③ ㄷ을 통해 직접인용절에서 사용된 상대 높임 표현이 간접인용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ㄹ을 통해 직접인용절의 시간 표현이 간접인용절에서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해설 : 직접인용절이 간접인용절로 전환될 때 달라지는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항목과 선지를 비교하여 따져보면 된다.
 ②의 경우 '인칭대명사' (사람을 가리킴)와 '지시대명사' (사물, 장소를 지시함) 개념이 전제되어 있어야 풀이가 가능하다. 직접인용절에 쓰인 '나' (1인칭), 간접인용절에 쓰인 '자기' (3인칭 재귀대명사) 모두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른 서술이 아니다.

[오풀]

- ① '먹거라' (해라체)가 '먹으라' (하라체)로 바뀐다.
 ③ '-입니다' (하십시오체)가 높임이 반영되지 않은 '-니다'로 바뀐다.
 ④ 직접인용절의 시간 표현 (오늘-현재)가 간접인용절에서는 발화하는 시점 (어제-과거)로 바뀐다.

• 정답 : ②

p.51. [예제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 법원직]

< 보 기 >

◦ 학습 활동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홀문장보다 복잡한 겹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하려면 각 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

형이 저지른 잘못이 빌미가 되었음을 동생이 밝혔다.

◦ 학습 활동 수행 결과

문장 전체에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는 3회 나타난다. 먼저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밝혔다'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명사절의 서술어는 '되었음'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관형사절의 서술어는 '저지른'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	㉡	㉢
①	동생이	잘못이	형이
②	동생이	빌미가	형이
③	형이	잘못이	빌미가
④	형이	빌미가	잘못이

• 풀이 : 예시문의 전체 주어는 '동생이'이고 서술어는 '밝혔다'이다. 목적어 역할을 명사절이 수행하고 있고, 명사절 속에는 다시 관형절이 안겨 있다. '형이 저지른'은 명사절 주어 '잘못이'를 꾸며 주는 관형절이고, 명사절 속의 '빌미가'는 보어, '되었음'이 서술어에 해당한다.
 "[(형이 저지른) 잘못이 빌미가 되었음]을 동생이 밝혔다."의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 정답 : ①

p.58. [예제 07] <보기>를 참고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직]

< 보 기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을 만들 때에는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되다’ 혹은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한다.

< 능동문 >

- ① 내가 웃었다.
- ② 모기가 나를 물었다.
- ③ 정부가 회담을 진행하였다.
- ④ 나는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

< 피동문 >

- 민수가 나를 웃겼다.
- 내가 모기에게 물렸다.
- 회담이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 풀이: ① ‘나를 웃겼다’에 쓰인 ‘웃기다’의 ‘-기-’는 사동 접사이다. 대개 목적어와 호응을 이루면 사동사이다.

[오답]

②는 ‘물리다’에 피동 접사 ‘-리-’, ③은 ‘-되다’, ④는 ‘-어지다’가 사용되었다.

• 정답: ①

p.60. [예제 09]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3 법원직]

< 보 기 >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로 특수 어휘나 부사격 조사 ‘께’에 의해 실현된다.

지우: 민주야, 너 내일 뭐 할 거니?

민주: 응, 내일 할머니 생신이라서 할머니 ㉠모시고 영화관에 가기로 했어.

지우: 와, 오랜만에 할머니도 뵙고 좋겠다.

민주: 응, 그렇지. 오늘은 할머니께 편지도 써야 할 것 같아.

지우: ㉡할머니께 드릴 선물은 샀어?

민주: 응, 안 그래도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엄마가 안마의자를 사서 ㉢드린대. 나는 용돈을 조금 보태기로 했어.

지우: 아, 할머니께서 ㉣편찮으셨구나.

- ① ㉠ ② ㉡ ③ ㉢ ④ ㉣

• 해설: ㉢ ‘편찮으시다’는 주어 ‘할머니께서’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주체 높임 어휘이다.

[오답]

①, ③ 객체 높임에 쓰이는 특수 어휘에는 ‘뵙다(뵈다)’,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여쭙다)’ 등이 있다. 예시문에서는 ㉠, ㉡이 이에 해당한다. 목적어 ‘할머니(를)’, 생략 부사어 ‘할머니께’를 높이기 위해 쓰였다.

② ㉡은 부사격 조사 ‘께’에 의해 실현된 예이다.

• 정답: ④

p.85. [예제 03] A, B, C에 들어갈 중세국어의 형태를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2022 법원직]

< 보 기 >

현대국어 관형격조사 ‘의’에 해당하는 중세국어 관형격조사는 ‘의 / 의’, ‘ㅅ’이 있다. 선행체언이 무정물일 때는 ‘ㅅ’이 쓰이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 ‘의 / 의’가 쓰인다. 다만 유정물이라도 종교적으로 높은 대상 등 존칭의 대상일 때는 ‘ㅅ’이 쓰인다.

- [A] 말쑤미 中國에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 [B] ㅅ들 거스디 아니호노니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데)
- 世尊[C] 神力으로 드외의 ㅎ산 사르미라
(*세존의 신통력으로 되게 하신 사람이다.)

* 세존: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A	B	C
①	나라의	사르미	의
②	나라의	사르미	ㅅ
③	나라	사르미	ㅅ
④	나라	사르미	ㅅ

• 해설: 무정물, 유정물(사람, 동물)의 뜻을 알고 모음조화 개념이 서 있다면 어렵지 않다. 더구나 현대국어 풀이가 있으므로 <보기>의 정보를 차분히 적용하면 된다.

A는 ‘나라’ (무정물)에 ‘ㅅ’이 붙고, B는 ‘사람’ (유정물+양성모음)에 양성조사(‘의’)가 결합되어 이어적기를 하면 ‘사르미’가 된다. C의 경우는 유정물(존칭)이므로 ‘ㅅ’이 붙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 된다.

• 정답: ③

p.86. [예제 0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3 법원직]

< 보 기 1>

- ㉠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음.
- ㉡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였음.
- ㉢ 현대 국어에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는 단어들이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 ㉣ 특정 부류의 모음이 같이 나타나는 모음조화 현상이 엄격히 지켜졌음.
- ㉤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음.

< 보 기 2>

- ㉠ 남기 새 님 나니이다
[나무에 새 잎이 났습니다.]
- ㉡ 이 사르미 내 님은 ㅅ들 아노너
[이 사람이 내가 이른 뜻을 아느냐?]
- ㉢ 大王이 出습 ㅎ샤되 뉘 바르래 드러가려 ㅎ노노
[대왕이 출령하시되 “누가 바다에 들어가려 하느냐?”]

- ① ㉠의 ‘나니이다’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의 ‘출승하사되’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의 ‘닐온’에서 ㉥을, ‘쁘들’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의 ‘아누녀’와 ㉨의 ‘하누뇨’에서 ㉩을 확인할 수 있군.

• 해설 : ㉥은 주어의 인칭(1, 2, 3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의 주어(‘사람이’)나 ㉢의 주어(‘누가’) 모두 3인칭에 해당되므로 주어 인칭에 따라 어미가 달라졌다고 한 ㉣의 서술은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는 판정 의문문이어서 ‘-녀’가 붙었고, ㉥는 설명 의문문(의문사가 있음)이어서 ‘-뇨’가 결합된 것이다.

[오답]

① ‘나니이다’를 ‘났습니다’로 해석한 것을 보면 과거 시제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② ‘출승하사되(출령하시되)’의 ‘샤’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닐온’을 ‘이른’으로 바꾼 것을 보면 추리할 수 있다. 두음 법칙 적용을 받지 않던 ‘니르다’가 현대에 오면 ‘이르다’가 된다. 그리고 ‘쁘+을’의 구조로 음성 모음 어간 뒤에 음성 모음 조사가 결합되어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참고] <중세 국어 의문형 종결어미>

형태	조건
1인칭	판정 의문문 (의문사 없음) -ㄴ가, -잇가, -녀 (‘아/어’ 계열)
3인칭	설명 의문문 (의문사 있음) -ㄴ고, -잇고, -뇨 (‘오’ 계열)
2인칭	의문사 관계없이 -ㄴ다/-는다

• 정답 : ④

p.87. [예제 0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 ~ ㉤을 이
 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법원직]

— < 보 기 1 > —

[중세 국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실현]

- 체언에 목적격 조사(을/를, 을/를, ㄴ)가 붙어서 실현됨.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체언 단독으로 실현됨.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보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 명사구나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됨.

— < 보 기 2 > —

- ㉠ 내 太子를 섬기스보되 (내가 태자를 섬기되)
 ㉡ 꽃 도쿄 여름 하느니 (꽃 좋고 열매 많으니)
 ㉢ 요한 고즈란쁘디 말오 (좋은 꽃일랑 팔지 말고)
 ㉤ 더 부텃 像을 밍그라 (저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 ① ㉠ : 체언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② ㉡ : 체언에 목적격 조사 없이 단독으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③ ㉢ : 체언에 보조사 ‘오’가 붙어서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④ ㉤ :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가 실현되었군.

해설 : 고전문이기기는 해도 현대어 해석이 주어졌으므로 그걸 활용하면 된다.

㉡은 ‘여름 하느니 = 열매(가) 많으니’이므로 주격 조사 없이 단독으로 주어가 실현된 모습이다.

정답 : ②

p.129. [예제 05] <보기>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문법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2022 법원직]

< 보 기 >

-던 「어미」

- 1)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2)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던지 「어미」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든 「어미」

‘-든지’의 준말.

-든지 「어미」

- 1)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2)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뒤 절의 내용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① 싫든 좋든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② 밥을 먹던지 말던지 네 맘대로 해라.

③ 어제 같이 봤던 영화는 참 재밌었다.

④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 해설 : <보기> 내용 읽지 않고 선지만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선택이나 상관없음’은 ‘든(지)’, ‘과거나 회상’은 ‘던(지)’이다.

②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먹든지 말든지’로 써야 한다.

• 정답 : ②

p.140. [예제 1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직]

< 보 기 >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① “그 일은 할 만하다.”는 “그 일은 할만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②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비가 올 듯도 하다.”와 같이 띄어 쓰

는 것만이 옳다.

- ③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떠내려가버렸다.”와 같이 적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는 앞말이 합성 용언이므로 띄어 쓴 경우에 해당한다.

- **풀이:**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의 경우 본용언 ‘놀아’ 뒤에 조사 ‘만’이 결합되어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을 띄어 쓴 경우에 해당한다.

[오류]

- ① 본 용언 '할'과 보조 용언 '만하다'를 붙여 쓴 경우이다.
- ② '을 듯하다/을듯하다' 모두 가능하지만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라서 띄어 써야 한다.
- ③ 본 용언 '떠내려가'가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보조 용언 '버렸다'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정답 : ④

③ ‘울산’은 [울싼]으로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고 Ulsan으로 적어야 해.

④ ‘집현전’은 [지편전]으로 거센소리로 발음되지만 체언이므로 ‘ㅈ’과 ‘ㅎ’을 구분하여 Jiphyeonjeon으로 적어야 해

해설: 규정의 (1)㉔에서 자음동화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는 발음 [송니산]을 반영해야 하므로 ‘Songnisan’으로 표기한다.

[오름]

- ① 규정의 (1)㉔에서 구개음화 규정에 따라 소리대로 적는다.
 ③ ㉔에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④ ㉔의 (다만) 규정이 적용된다. 체언에서 'ㄱ'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히 적는다. 따라서 전자법(글자 그대로 옮김)을 적용함으로써 'h'가 들어간다.

정답 : ②

p.158. [예제 01] <보기>를 참고하여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1 법원직]

〈보기〉

(1)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내용

㉔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 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㉔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예) 알약[알락] allyak

㉔ 자음동화, 구개음화, 거센소리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함.

예) 왕십리는 [왕심니] Wangsimni 농다[노타]
nota

-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예) 목호 Mukho

㉔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㉓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2) 표기 일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ㅟ	ㅞ	ㅟ	ㅠ	ㅡ
a	eo	o	u	eu	i	ae	e	oe	wi	ya	yeo	yo	yu		

ㅞ	ㅟ	ㅠ	ㅡ	ㅢ	ㅣ	ㅤ
yae	ye	wa	wae	wo	we	wi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ㅋ	ㆁ	ㆅ	ㆆ
gk	kk	k	d,t	tt	t	b,p	pp	p	j	jj	ch	s	ss

ㄛ	ㄴ	ㄹ	ㅇ	ㄹ
h	n	m	ng	r,l

- ① ‘해돋이’는 [해도지]로 구개음화가 되므로 그 발음대로 haedoji로 적어야 해.
- ② ‘속리산’은 [송리산]으로 발음되지만 고유명사이므로 Sokrisan으로 적어야 해.

2편 고전 문학

p.189. [예제 01] 밑줄 친 ㉠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2023 법원직]

- ①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다/나는 풀이 죽는다/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
- ②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나는/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말없이/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2' -
- ③ 그런 사람들이/이 세상에서 알파이고/고귀한 인류이고/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 ④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어 - 이육사, '꽃' -

• 해설 : ㉠과 같은 애상적 정서와 체념 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①이다. 사실 두 작품 모두 남편 혹은 아내의 사별로 인한 슬픔과 체념이 반영된 작품이다. ① '강우'를 읽어 보자. '밖을 기웃거리'는 화자의 일말의 기대는 무너지고 '풀이 죽는' 화자는 현실(아내의 죽음)을 자각하게 되고, 결국 '어쩔 수가 없다고' 체념한다.

[오풀]

- ② '까마귀'는 화자가 동일시하려는 대상이며, 고고하고 의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③ 화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 있다. 시 전체를 보면, '시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던 시인은 남대문시장에 이르러 순박하고 인정이 있는 서민들의 성실한 삶을 보며 깨닫게 된다.
- ④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생명력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드러나 있다.

• 정답 : ①

p.216. [예제 1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 법원직]

(가) 「가시리」 본문 : 생략

(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과의 재회를 희망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과 화자의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④ 이별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해설 : (가)와 (나)는 고전과 현대의 대표적인 이별 제재의 노래이다. 고려 가요 (가)에서 화자는 임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절제하며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 (나)의 화자도 슬픈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며 떠나보내고 있다. 둘 다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고 있고 자신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③의 진술은 맞다고 할 수 있다.

[오풀]

①은 (가)만, ②는 (나)만 해당되고 ④는 모두 해당되지 않는 진술이다.

• 정답 : ③

2. ㉠~㉢에 대해 나는 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선 화자가 임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드러나며 서러움을 절제하는 화자의 모습이 느껴져.
- ② ㉡에서 '설운'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임 역시 이별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은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화자의 분신으로도 볼 수 있겠군.
- ④ ㉢은 인고의 자세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군.

• 해설 : '설운'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임으로 보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된다. 하지만 '주체를 화자로 보면 화자는 서럽지만 임이 아쉬워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②의 진술은 잘못되었다.

[오풀]

- ① 화자가 임을 붙잡는 과정에서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짜증이 나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별을 수용한다고 하였다.
- ③ '발하는 꽃'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떠나는 임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는 정성과 사랑의 상징물이다.
- ④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의 인고와 반어적 태도가 반영된 구절이다.

• 정답 : ②

3. (가)와 (나)의 형식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수미 상관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전통적인 3·3·2조의 3음보 율격을 보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해설 : (가)는 기(슬픔)-승(원망)-전(체념)-결(기원)의 4단 구성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도 '기(체념)-승(축복)-전(희생적 사랑)-결(슬픔의 극복)'의 4단 구성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④는 적절한 진술이다.

[오풀]

- ① 수미 상관 형식은 (나)만 해당된다.
- ② 시어 반복을 통한 운율감은 (가)만 해당된다.
- ③ (가), (나) 모두 3음보의 음보율을 취하고 있지만, (가)는 3·3·2조, (나)는 7·5조의 음수율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 정답 : ④

하는 맹자의 말속에, 그리고 <보기>에서도 힘과 여건(분수)에 따라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특징은 ㄴ과 ㄷ이다.

[오답]

ㄱ. <차마설>의 '만방의 임금'과 <보기>의 '힘센 이'는 멀리해야 할 대상 이라기보다는 권력 있는 자를 가리킨다.

ㄴ. <차마설>은 올바른 소유 관념에 대한 성찰의 자세를 촉구하고 있지만, <보기>의 경우는 자연을 즐기는 화자 자신의 만족감을 노래한 것이다.

• 정답: ③

p.245. 「훈민정음 - 어저」 다음

[예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4 법원직]

世·성宗중 御·영製·정 訓·훈민민正·정음품
나·랏·말쑈·미 ㉠ 中·동國·국·에 달·아 ㉡ 文·문·字·장·와·로
서르스 스긔·디 아·니·홀·쑈
·이런 전·추·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저 ㉢ ·홀·배
이·셔·도 ㅁ·춤·내 제 ㉣ ·ㅅ·들 시·리 퍼·디 :몬·흙·노·미
하·니·라 ㉤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 ·스·플·여·들·字·장·로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 ·부·메 便·변·安·
키 ㅎ·고·저 ㅎ·ㅅ·ㅅ·미·니·라

1. 윗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에서 동일한 비교의 부사격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에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표시하는 조사가 드러난다.
- ③ ㉣과 ㉤에서 같은 격을 표시하는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과 ㉦을 통해 체언의 끝소리와 모음 조화에 따라 목적격 조사가 다르게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 풀이: ㉠ '중국과 달라'에 쓰인 '에'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이지만, ㉡ '사용함에'에 쓰인 '에'는 도구나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② ㉢은 '한자와 더불어 (비교할 때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로 해석하므로 적절하다.

③ ㉣ '할 바+ㅣ'와 ㉤ '나+ㅣ'에 공통으로 주격 조사가 들어 있다.

④ ㉥에는 받침 아래에서 목적격 조사 '을'이, ㉦에는 모음('중'의 ㅇ은 형식적으로 들어간 기호) 아래에서 '를'이 사용되었다.

• 정답: ①

2. 현대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런'이 '이런'으로 바뀌었음을 통해 성조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말쑈·미'가 '말씀이'로, 'ㅁ·춤·내'가 '마침내'로 바뀌었음을 통해 아래 아(·)가 첫 음절에서는 'ㅏ',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ㅡ' 또는 'ㅣ'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퍼·디'가 '퍼지'로 바뀌었음을 통해 'ㅣ'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몬·흙'이 '못할'로 바뀌었음을 통해 종성의 'ㄷ'이 'ㅅ'으로 받음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풀이: 종성의 'ㄷ'이 'ㅅ'으로 바뀐 것은 17세기 이후 7종성법에 따라 'ㄷ'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 받음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정답: ④

p.310. [예제 1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 법원직]

(가)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는구료 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으니 墮河而死

이 내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 작자 미상, 「공무도하가」 -

(나)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너든 길 알피 잇니

너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 이황, 「도산십이곡」 -

(다)

한숨아 세 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주 세살장주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저귀 수돌저귀

빅목결새 쑥닥 박고 용(龍) 거북 주물쇠로 수기수기 추엿논

되 병풍(屏風)이라 덜걱 저븐 족자(簇子)라 텃티글 문다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좁 못 드러 흐노라

- 작자 미상 -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거부하는 화자를 표현하고 있다.

• 해설: (가)에서는 '어이할꼬', (나)는 '엇절고', (다)는 '드러온다'(들어오느냐?) 등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비탄, 의지, 체념 등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참고로, (가)는 사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고대가요이고, (나)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보여 주는 시조이다. (다)는 한숨을 의인화하여 그칠 줄 모르는 시름과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사실시조로 해학적 성격의 수심가이다.

[오답]

과장적 표현이나 반어적 표현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정답: ②

2. (나)와 (다)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각 장이 4음보의 전통적인 율격으로 되어 있다.
- ② (다)는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 현저히 길어진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종장의 첫 음보 음절 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해설: (나)는 평시조, (다)는 사실시조이다. 사실시조도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 형식에 44조 4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사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 2구 이상 길어지는 장형화된 시조이다. 대개는 중장이 많이

길어지는 편이다.

종장 제1음보도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다)의 종장에서 '어인지'를 보면 확인된다.

• 정답 : ④

p.356. 「홍보가」 다음

[예제 3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 법원직]

[중중모리]

홍보 마누라 나온다. 홍보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어디 돈, 어디 돈하고 돈 봅시다, 돈 봐.” “놓아두어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根本)을 자네 아나.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 어 어 어 얼씨구 얼씨구 돈 봐.”

[아나리]

이 돈을 가지고 쌀팔고 고기 사고 고기 죽을 누그름하게 열한 통이 되게 쪼아 가지고 각기 한 통씩 먹여 놓으니,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빠기잠*을 자는데, 죽국물이 코끝에서 쇠죽 후죽국 내리듯 땡땡땡 떨어지겠다. 홍보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여보 영감 그러니 이 돈이 무슨 돈이오?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인지 좀 압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열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석 냥씩 서른 냥을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하고 샅으로 받아 온 돈이제.” 홍보 마누라 깜짝 놀라며, “소중한 가장 매품 팔아 먹고산단 말은 고금천지에 어디서 보았소.”

[진양]

“가지 마오 가지 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니, 설마한들 죽사리까.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죽도록 골병 된답디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아나리]

홍보 아들놈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시오?” “오냐 병영 간다.” “갔다 올 제 떡 한 보따리 사 가지고 오시오.”

[중모리]

아침밥을 끓여 먹고 병영 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 내려가며 신세자탄(身世自嘆) 울음을 운다. “어떤 사람 팔자 좋아 화려한 집 짓고 잘사는데 내 팔자는 왜 그런고.” 병영골을 당도하여 치어다보니 대장기요,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로구나. 깊은 산속에 있는 사나운 범의 용맹 같은 용(勇) 자 붙인 군로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 박홍보는 슷한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

[A]

《[아나리]

방울이 떨렁, 사령 “예이.” 야단났지. 홍보가 삼문 간에 들어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불기를 맞거늘, 홍보 마음에는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 냥 번다. 나도 불기 좀 까고 업저 볼까.’ 불기를 까고 삼문 간에 가 엎드렸을 제 사령 한 쌍이 나오더니, “병영 생긴 후 불기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사령 중에 뜻밖에 홍보 씨 아는 사령이 있던가, “아니 박 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그러.”

“당신 꼴았소.” “꼴다니 계란이 꼴지, 사람이 꼴나. 그게 어떤 말인가?” “박생원 대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곤장 열 대 맞고 돈 서른 냥 받아 가지고 벌써 떠나갔소.” 홍보가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 척이요 방울눈에 기운 좋습디다.” 홍보가 말을 듣더니, “허허 그전 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마는 옆집 피수 애비란 놈이 알고 발등걸이*를 허였구나.”

[중모리]

“번수네들 그러한가. 나는 가네. 지키기나 잘들 하소. 매품 팔러 왔는데도 손재(損財)가 붙어 이 지경이 웬일이냐. 우리 집을 돌아가면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사 주마고 달래고, 떡 사 달라 우는 자식 엇 사 주마고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러저렁 울며돌며 돌아온다. 그때에 홍보 마누라는 영감이 떠난 그날부터 후원에 단(壇)을 세우고 정화수를 바치고,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 한 대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밤낮 기도하면서, “병영 가신 우리 영감 하마 오실 제 되었는데 어찌하여 못 오신가. 병영 영문 곤장을 맞고 허약한 체질 주린 몸에 병이 나서 못 오신가. 길에 오다 누웠는가.” 》

[아나리]

문밖에를 가만히 내다보니 자기 영감이 분명하겠다. 눈물 찢고 바라보니 홍보가 들어오거늘, “여보영감 매 맞았소? 매 맞았거든 어디 곤장 맞은 자리 상처나 좀 봅시다.” “놔둬. 상처고 여편네 죽은 것이고, 요망스럽게 여편네가 밤새도록 울더니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불성 쇠아들이다.” 홍보 마누라 좋아라고,

- 작자 미상, 「홍보가(興甫歌)」-

*고자빠기잠: 나무를 베어 낸 뒤에 남은 밑동처럼 꼴이 있어서 자는 잠

*발등걸이: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 하는 행위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하여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 ④ 상황에 맞는 장단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도술을 부린다거나 염라국, 용궁, 신선 등의 비현실성이 제시문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③이 정답이다.

[오풀]

- ① '홍보 마누라 나온다', '가지 마오' 등이 반복된다.
 ② '그때 박홍보는 듯한 사람이라 벌벌 떨며 들어간다.'와 같은 것을 보면 전지적 개입을 통한 인물 평가가 나타나 있다.
 ④ 애원조나 간절한 상황에서는 느린 장단의 진양조가, 담담하거나 서정적인 대목은 중모리, 경쾌하고 흥겨운 대목은 중중모리 등, 적절한 장단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보 아내는 홍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군.
 ② 홍보는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된 상황을 새옹지마(塞翁之馬)로 여기고 있군.
 ③ 홍보 아들들은 매품을 팔게 된 홍보에 대해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고 있군.
 ④ 홍보는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령의 말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하는군.

정답: ①

해설: 끝 부분을 보면 홍보 아내가 병영 간 홍보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는 성어인 '학수고대(鶴首苦待)'가 어울리고, 나머지 선지의 성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풀]

- ② 새옹지마(塞翁之馬):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③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④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보는 매품팔기에 실패하자 사령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② 홍보는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③ 홍보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④ 홍보의 매품팔기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삶이 몹시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피수 예비'가 남아채간 것을 아쉬워하고 있긴 하지만 사령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①이 정답이다.

3편 현대 문학

p.407. 「참회록」 다음

[예제 09] 아래의 밑줄 친 시어 중 '구리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소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 법원직]

- 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여니,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1」 -
 ②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 기침을 하자
 - 김수영 「눈」 -
 ③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 백석 「흰 바람벽에 있어」 -
 ④ 삼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 샅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해설: '구리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물로써 기능한다. ③의 '흰 바람벽'도 기억의 영상들이 비치는 곳으로, 화자가 떠올린 과거의 기억과 추억이 이 미지화되어 투사되고 있는 스크린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이자 화자가 고향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풀]

- ① '유리'는 죽은 아이가 가 있는 저승과 화자가 있는 이승을 단절하면서 교감하게 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 소재이다.
 ② '기침'은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④ '흐르는 물'은 고단한 삶이 연속되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다.

정답: ③

[예제 10] <보기>와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 법원직 변형]

<보기>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작거리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 ① <보기>는 위 시와 달리 고백적 어조를 통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난다.
- ② <보기>와 위 시는 색채를 나타내는 시어를 통한 시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 ③ <보기>와 위 시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감정이 고조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위 시는 <보기>와 달리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해설: <보기>에서는 빨갛게 피는 꽃을 통해 암담한 상황을 극복하는 강렬한 생명력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위 시에서는 파란 녹이 긴 구리거울을 통해 식민지 치하의 치욕스러운 민족적 현실과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낸다. ②에서 말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색채어를 활용한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①은 위 시의 특징이고, ④는 <보기>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③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②

p.434. 「향수」 다음

[예제 17] 위의 시와 <보기>를 비교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2022 법원직 변형]

< 보 기 >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산쟁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뒤편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 ① 위의 시와 <보기> 모두 과거의 추억을 잃어버린 현실을 씩씩히 드러내고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위의 시는 고향과의 거리감,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위의 시와 <보기>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보기>와 달리 위의 시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해설: ③은 의인화 수법이 반영되었는가를 묻고 있다. <보기> 시에서는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위의 시에서는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등에서 의인법을 구사하여 고향에 대한 정감을 드러내었다.

[오답]

①, ② <보기> 시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두 시 모두 다양한 심상을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 시는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심상을, 위의 시는 시각, 청각, 촉각(풀씨 이슬에 함초름 휘적시던, 따가운 햇살), 공감각(금빛 게으른 울음)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 정답: ③

<보기> 시 「고향」 핵심 정리

- 성격: 회고적/애상적/감각적
- 어조: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탄식적 어조
- 심상: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심상
- 표현: 변함 없는 자연과 무상한 인생의 대조
- 주제: 고향 상실의 비애와 인생무상

p.438. 「흰 바람벽이 있어」 다음

[예제 20] <보기>를 참고하여 [17행~끝]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직 변형]

< 보 기 >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일종의 스크린 역할을 하는 '흰 바람벽'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다. '흰 바람벽'을 통해 시인의 추억이 지나가고, 마침내 화자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처리된다. 그 목소리의 실제 주인공인 화자는 스크린 속에서 펼쳐지는 '나'를 보는 관객이 된다. '나'가 스크린을 통해 이렇게 둘로 분리되면서 '나'의 성찰은 한층 깊이를 갖게 된다.

- ① '이러한 글자들'은 실제로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화자가 관객이 되어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지나가는 글자들을 바라보고 있군.
- ③ 화자의 목소리가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지나가는 글자로 표현되면서 성찰의 깊이가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초생달', '바구지꽃', ' 짝새', '당나귀'와의 합일을 통해 화자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냈군.

• 풀이: • 해설: '초생달', '바구지꽃', ' 짝새', '당나귀' 등은 하늘이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로서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들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리된 '나'와 관련된 것들이지 '합일을 통해 지향하는 것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④의 진술은 <보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정답: ④

p.444. 04 현대시조의 감상

(2) 무꽃 - 조운

무꽃에 번득이던

흰나비 한 자웅이

무꽃 위 나비 한쌍 (기)

언뜻 발견한 나비 한쌍

쫓거니 쫓기거니 한없이

올라간다

다정한 나비 한쌍의 비상 (서)

상승의 이미지

바래다

바래다 놓쳐

나비의 자취를 놓침 (결)

배웅하거나 바라보다

도로 꽃을 보누나

아쉬움의 정서

·갈래 : 구별배행시조, 단시조

·성격 : 감각적, 낭만적

·제재 : 나비

·어조 :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어조

·특징

① 전통적인 행 배열에서 벗어나 구별배행 방식을 취함.

②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추구와 좌절의 정서를 드러냄.

·주제 : 평화롭고 이상적인 삶의 지향과 좌절의 아쉬움

·출전 : 「조운시조집」(1947)

·작자 : 조운(1900~?). 시조 특유의 운율을 살리면서 우리 민족의 서정과 정감이 배어 있는 작품 발표. 이병기 선생과 시조부흥운동을 펼침. 1948년 월북. 「석류」, 「파초」 등

이 시조에서 '나비'는 이상적 세계를 소망하는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하지만 결국 나비의 자취를 더 이상 좇지 못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은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화자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3·1운동 후 일제의 체포령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하여 만주를 유랑하던 작가의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p.451. 소설 - 구성

③ 기타 다양한 유형

㉠ 액자식 구성 : 하나의 이야기(외화) 속에 또 다른 이야기(내화)가 들어 있는 구성이다. '내부 이야기'가 핵심이 되는 이야기로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야기 틀이 바뀔 때마다 시점이 변화(일인칭 ⇨ 삼인칭 ⇨ 일인칭)한다. 사건의 객관적 전달 효과로 이야기의 신빙성이 강화된다.

예 김동리 「광화사」, 「배따라기」, 「붉은 산」, 김동리 「등신불」, 현진건 「고향」, 안국선 「금수회의록」, 이청준 「선화동 나그네」, 「눈길」, 박완서 「그 여자에 집」

■ 액자식 구성의 예 - 김동리 「무녀도」

[도입 액자] - 무녀도의 그림 내용과 내력

[내부 서사] ⇨ 무당 모화와 딸 낭이의 인물 제시(발단)
⇨ 옥이의 귀향과 그로 인한 종교적(무속적-기독교적) 갈등(전개)
⇨ 갈등의 고조. 옥이, 모화의 칼에 찔림.(위기)
⇨ 옥이의 죽음. 교회당이 들어섬.(절정)
⇨ 모화의 마지막 곳과 죽음(결말)

[종결 액자] - 후일담, 아버지가 낭이를 데려감.

㉡ 움니버스식 구성 :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 아래 나열되어 있는 병렬식 구성법이다. 각각의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완결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나 사건을 펼쳐 나간다.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쓰이며, 한 작품을 여러 작가나 감독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피카레스크식 구성법'이 있다. 움니버스 구성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는데, 한 인물이 여러 장소를 누비며 모험을 하고 다양한 인물들과 만나 경험하는 사건들이나 서로 관련 있는 인물들이 각자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방식의 구성법을 의미한다. '움니버스식'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들이라면 '피카레스크식'은 인물 간의 유기성이 높다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관점에 따라 작품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 박태원 「천변풍경」, 작자 미상 「봉산탈출」,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 여로형 구성 : 여행하는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는 이야기 방식이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선적 여로형' 방식과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내용이 마무리되는 '원점 회귀형' 방식이 있다. 중심 인물의 심리적, 상황적 변화 과정에 집중하여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황석영 「삼포 가는 길」(선적 여로형), 염상섭 「만세전」(원점 회귀형)

㉣ 환몽 구성(구조) : 등장 인물이 꿈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대개 '현실→꿈→현실'의 구조를 가지며, 꿈에 들어가는 것을 '입몽(入夢)',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각몽(覺夢)'이라 한다. 액자식 구성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예 김만중 「구운몽」, 작자 미상(혹은 유영) 「운영전」

㉤ 삽화식 구성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나 사건 등의 일화를 삽입하거나 나열하는 구성법으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고 주제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의 구성법이다.

예 박태원 「천변 풍경」, 박지원 「광문자전」,

㉥ 의식의 흐름에 따른 구성 : 인물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간의 순서에 상관없이 두서없이 나열하는 방식이

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예 이상 「날개」,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p.458. 소설 (3) 시점의 유형과 서술자의 개입 - 끝

⑤ 서술자의 개입 :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끼어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드러내는 서술 방법으로 주로 전지적 시점에서 나타난다.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 감정 표현 등을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고전(판소리계) 소설, 개화기 신소설 등에서 많이 활용하였으며 현대 소설에서도 쓰이고 있다.

㉠ 편집자적 논평 : 인물, 사건, 상황에 대해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림.

예 운봉이 반겨 들고 필연을 내어주니 좌중이 다 못하여 글 두 귀를 지었으되, 민정을 생각하고 본관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었다. - 「춘향전」 /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위대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치권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지요. - 채만식, 「태평천하」 - 「」 /

㉡ 서술자의 감정 노출 :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감정을 드러냄.

예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 것인가. 어사또 남원읍의 공사를 모두 처리하고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길을 떠나는데, 위기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하지 않으랴. - 「춘향전」 / 길동이 재배 하직하고 문을 나매, 운산 접접하여 지향없이 행하니 어찌 가련하지 아니하리오 - 「홍길동전」 /

㉢ 독자에게 말 걸기 :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내듯이 표현함.

예 저 사령 거동 보소. - 「춘향전」 / 놀보 놀의 거동 봐라. - 「홍보가」 / 연신과 주재소 주임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나 그 밖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는다. - 심훈, 「상록수」

㉣ 서사의 흐름 끊기 : 고소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쓰는 상투어인 '화설',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로 나아갈 때 쓰는 말인 '각설', '차설' 등도 넓게는 서술자 개입으로 볼 수 있음.

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 「옥루몽」 / 차설, 가달이 죽제의 죽음을 보고 감히 싸울 마음이 없어 패잔군을 거느리며 달아나는지라. - 「임경업전」 /

㉤ 기타 :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제시나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예 양증서럽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의 나이는 다섯 살. 장자는 어찌 될지, 현재로서는 최치수의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 박경리, 「토지」

4편 작문과 비문학

591p. (2) 정보의 개괄적 세부적 확인

[예제0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 법원직]

미생물은 오늘날 흔히 질병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1762년 마르쿠스 플렌치즈는 미생물이 체내에서 증식함으로써 질병을 일으키고, 이는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질병은 각자 고유의 미생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플렌치즈는 외견상 하찮아 보이는 미생물들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킬 수가 없었다. 심지어 한 비평가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가설에 반박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대꾸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들어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에 의해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파스퇴르는 세균이 술을 식초로 만들고 고기를 썩게 한다는 사실을 연달아 증명한 뒤 만약 세균이 발효와 부패의 주범이라면 질병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배종설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자연발생설에 반박하는 이론으로서 플렌치즈 등에 의해 옹호되었지만 아직 논란이 많았다. 사람들은 흔히 썩어가는 물질이 내뿜는 나쁜 공기, 즉 독기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1865년 파스퇴르는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그는 미생물이 누에에게 두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감염된 알을 분리하여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프랑스의 잠사업을 위기에서 구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로베르트 코흐라는 내과 의사가 지역농장의 사육동물을 휩쓸던 탄저병을 연구하고 있었다. 때마침 다른 과학자들이 동물의 시체에서 탄저균을 발견하자, 1876년 코흐는 이 미생물을 쥐에게 주입한 뒤 쥐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 암울한 과정을 스무 세대에 걸쳐 집요하게 반복하여 번번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고, 마침내 세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종설이 옳았던 것이다.

파스퇴르와 코흐가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재발견하자 미생물은 곧 죽음의 아바타로 캐스팅되어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탄저병이 연구된 뒤 20년에 걸쳐 코흐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한센병, 임질, 장티푸스, 결핵 등의 질병 뒤에 도사리고 있는 세균들을 속속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을 견인한 것은 새로운 도구였다. 이전에 있었던 렌즈를 능가하는 렌즈가 나왔고, 젤리 비슷한 배양액이 깔린 접시에서 순수한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염색제가 등장하여 세균의 발견과 확인을 도왔다.

세균을 확인하자 과학자들은 거두절미하고 세균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지프 리스터는 파스퇴르에게서 영감을 얻어 소독 기법을 실무에 도입했다. 그는 자신의 스태프들에게 손과 의료 장비와 수술실을 화학적으로 소독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수많은 환자들을 극심한 감염으로부터 구해냈

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질병 치료, 위생 개선, 식품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세균 차단 방법을 공리했다. 그리고 세균학은 응용과학이 되어 미생물을 쫓아내거나 파괴하는데 동원되었다. 과학자들은 미생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병든 개인과 사회에서 미생물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그 부정적 태도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1. 밑줄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플렌치즈의 주장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 ② 플렌치즈는 썩어가는 물질이 내뿜는 독기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였다.
- ③ 코흐는 동물의 시체에서 탄저균을 발견한 후 미생물을 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 ④ 파스퇴르는 프랑스의 잠사업과 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해설: 2문단 끝에 보면, 파스퇴르가 “미생물이 누에에게 두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 감염된 알을 분리하여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프랑스의 잠사업을 위기에서 구했다.”라고 하였으므로 ④의 서술은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오풀]

①②는 1문단에서, ③은 3문단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2. 밑줄의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법원직]

- ① 세균은 미생물의 일종이다.
- ② 세균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 ③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통시적으로 변화해 왔다.
- ④ 코흐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 이전에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들을 발견했다.

해설: 이 문제는 다음 단원의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의 ‘내용 미루어 알기’와 관련되지만 공통 지문이어서 여기에 게재하였다.

④의 진술은 본문 내용과 다르다. 4문단에 보면, “코흐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 세균들을 속속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을 건인한 것은 새로운 도구였다. ~ 세균의 발견과 확인을 도왔다.”라고 하였으므로 새로운 도구의 개발로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 즉 세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오풀]

①은 1, 2 문단과 전체 내용에서, ②는 마지막 문단에서, 그리고 ③은 전체 내용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시적’이란 시간이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답: ④

593p. (3) 논지 전개 방식과 서술 방식

[예제14] 다음 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3 법원직]

프레임(frame)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다.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런데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법을 ‘이중 프레임밍’,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이차 프레임’이라 칭한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대상을 틀로 에워싸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상이 작거나 구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되어, 자칫 밋밋해질 수 있는 화면에 깊이감과 입체감이 부여된다. 광고의 경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이차 프레임 안에 상품을 위치시켜 주목을 받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

다음으로,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져 구속, 소외, 고립 따위를 환기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 내부의 대상과 외부의 대상 사이에는 정서적 거리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어떤 영화들은 작중 인물을 문이나 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 주면서, 그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을 암시하거나 불안감, 소외감 같은 인물의 내면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어떤 영화는 작중 인물의 현실 이야기와 그의 상상에 따른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 나온다.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가령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객의 지각 행위를 방해하여, 강조의 기능을 무력한 것으로 만들거나 서사적 긴장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시켜 공간이나 인물의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거나 파괴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상의 운동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 사례도 있다.

- ① 이차 프레임의 기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이차 프레임이 사용되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차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 ④ 프레임, 이중 프레임밍, 이차 프레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해설: 이 글은 시각 매체에서 활용되는 ‘프레임’, ‘이중 프레임’, ‘이차 프레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중심 화제인 ‘이차 프레임’의 기능 3가지와 그 예시를 든 글이다.

제시문에서는 이차 프레임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③이 정답이 된다.

[오풀]

① 이차 프레임의 기능이 둘째 문단부터 끝까지 서술되어 있다.

② 광고, 영화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차 프레임이 사례가 서술되어 있다.

④ 첫째 문단에서 각 어휘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정답 : ③

600p. (1) 내용 미루어 알기 문제 끝

[예제 17]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법원직]

〈 보 기 〉

나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며칠 전 제사가 있어서 대구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듬뿍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중 일부를 달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께 그 용돈으로 ‘문상’을 다 샀기 때문에 남은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문상’이 무엇인냐고 물으셨고 나는 ‘문화상품권’을 줄여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کم짜’나 ‘훈남’, ‘생파’ 같은 단어들을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설명을 해드려야 해서 불편할 때가 많다.

- ① 어휘는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 ② 어휘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 ③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기도 한다.
- ④ 은어나 유행어는 청소년층이 쓰는 경우가 많다.

[풀이]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형적 어휘의 특성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남녀에 따라 다른 어휘 사용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답 : ③

602p. (1) 내용 미루어 알기

[예제 22] 문맥을 고려하여, a, b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2022 법원직 변형]

[앞 지문 생략]

한편 다각화를 함으로써 기업은 사업 부문들의 경기 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사업이 반도체, 철강, 조선과 같이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사업 분야일수록, 기업은 (a) 분야의 다각화를 함으로써 경기가 불안정할 때에도 자금 순환의 안정성을 비교적 (b)할 수 있다.

	a	b
①	비관련	확보
②	비관련	제거
③	관련	확보
④	관련	제거

• 해설 : 제시문만 가지고는 완전한 정답 도출이 어렵긴 하지만 연습용으로 일부 지문만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이 문단은 기업의 다각화 전략의 효용에 대해 첨가하고 있는 문단으로, 다각화는 기업이 사업 부문들의 경기 순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불경기과 호경기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불경기를 대비하여 ‘비관련’ 분야

로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위험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력(관련) 사업 ↔ 비관련 사업’, ‘위험성 ↔ 안정성’, ‘줄임 ↔ 확보’의 대조 개념으로 접근하면 생략 내용을 추리할 수 있다.

• 정답 : ①

[예제 23]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 법원직 변형]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학문의 방법론은 학문의 대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때 그 대상의 모습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를 학문의 방법론에 적용한다면, 미술사학은 미술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미학은 미술을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즉 두 학문은 _____,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대상의 다른 특색을 연구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이 되는 것이다.

- ① 비슷한 특징이 있지만
- ② 연구 방법이 동일하지만
- ③ 같은 대상을 보고 있지만
- ④ 명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해설 : 생략 내용의 앞을 보면 “어떤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환언 접속어 ‘즉’ 뒤와 대응해 보면 “() /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이다. 결국 ()에 들어갈 ‘어떤 대상’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③이 문맥에 어울린다.

정답 : ③

603p. (1) 내용 미루어 알기 문제 끝

[예제23] 다음 추가

[예제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인들이 만들어 낸 플라스틱 양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약 83억 톤에 이른다.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한 해 약 200만 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해 2020년에는 약 4억 톤이 되었다. 이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서 만들면 만드는 대로 지구에 쌓이고 있다.

심지어 이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순간부터 사라질 때까지 온갖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을 꾸준히 배출해서 더욱 문제가 된다. 특정한 종류의 플라스틱은 높은 열이나 전자레인지에 노출되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 안전할 것 같은 종이컵도 안쪽에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되기도 한다. 폴리스티렌(PS)으로 만들어진 음료 컵 뚜껑에서는 스타이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나와서 많은 나라에서 이를 폴리프로필렌(PP)으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플라스틱에서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이름도 복

잡한 온갖 해로운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한편 플라스틱이 마모되어 만들어지는 ㉠ 미세 플라스틱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폐기량을 비교했을 때 오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시작된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리처드 톰슨의 연구 팀에서 나머지 플라스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 바닷속을 떠돌고 있음을 밝혀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소금으로 흘러들고, 물고기 먹이가 되어 식탁 위에 올라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고,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비와 눈이 되어 전 지구에 내리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 섬유에서도 만들어진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면 수십만 개의 미세 섬유가 빠져나온다. 너무 작아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미세 섬유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로 흘러든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약 1/3은 미세 섬유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패스트 패션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패스트 패션은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매우 신속하게 제작, 유통, 판매하는 패션 산업을 가리킨다. 누구나 부담 없이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따라 쉽게 사 입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한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지구를 위해 무척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빨대가 문제라면 플라스틱 빨대만 금지할 것인지 빨대 자체를 금지할 것인지, 금지한다면 기업의 빨대 생산과 유통에 벌금을 물릴 것인지 소비자의 빨대 이용에 벌금을 물릴지, 그렇게 되면 아픈 사람이나 어린아이처럼 빨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재료로 빨대를 대신한다면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게 무엇일지, 계속 묻고 또 물어야만 한다.

1. 밑글을 읽고 주어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 법원직]

- ① 잘 썬 플라스틱을 개발한다면 환경 호르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폴리프로필렌(PP)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 ③ 바닷물과 달리 눈과 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 ④ 환경 오염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풀이: 2문단을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나오는 폴리스티렌(PS)으로 만들어진 음료 컵 뚜껑을 많은 나라에서 폴리프로필렌(PP)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②는 합리적인 추론 내용이다.

[오답]

- ① 2문단을 보면,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순간부터' 온갖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고 하였다.
- ③ 3문단 끝에 미세 플라스틱은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비와 눈이 되어' 내린다고 하였다.
- ④ 마지막 문단에 소비자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 정답: ②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직]

- ① 플라스틱 폐기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이유에 해당한다.
- ② 사람이 먹는 음식에도 유입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③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미세 섬유와도 관련이 있다.
- ④ 합성 섬유의 사용이 늘어나면 그 양이 증가할 수 있다.

• 풀이: 플라스틱 폐기량이 생산량보다 '적은' 이유에 해당한다. ㉠의 바로 아래 내용을 보면, 생산량에 비해 폐기량이 적은 이유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다.

[오답]

②는 3문단에서, ③과 ④는 4문단에서 쉽게 확인된다.

• 정답: ①

609p. (4) 어휘 어구의 의미 추리

[예제31] 문맥상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3 법원직 변형]

•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은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 내포한다.
•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 유도 기능이다.
• 다음으로,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져 구속, 소외, 고립 따위를 ㉢ 환기한다.
•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 뉘레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 ① ㉠: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 ② ㉡: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
- ③ ㉢: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꿈.
- ④ ㉣: 예시하여 모범으로 삼는 것.

• 해설: 동음어의 지시적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로, 원문에서 ㉠~㉣이 포함된 문장만 게재하였다.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꾼다는 말은 '환기(換氣)'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동음어의어인 '환기(喚起)'를 쓴다. '환기(喚起)'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맞게 연결되어 있다.

• 정답: ③

611p.

[예제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80년대 심리학자들은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것과 연관된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테면 'SO_P'에서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면, 최근에 '떡다'라는 단어를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SOAP(비누)' 보다는 'SOUP(수프)'란 단어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에 금방 '씻다'라는 단어를 본 사람이라면 '수프'보다 '비누'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을 ‘점화 효과’라 하고, ‘먹다’라는 말이 ‘수프’ 생각을 점화 또는 촉발했다거나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 ‘수프’가 떠올랐다고 설명한다.

점화 효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머릿속에 ‘먹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수프’란 말이 어렴풋이 들리거나 뿌옇게 보여도 평소보다 빨리 그 단어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수프 외에도 ‘고기’, ‘배고프다’, ‘다이어트’ 등 음식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가 떠오른다. 여기에서 점화된 개념은 정도는 약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개념을 점화할 수 있다. 이런 활성화는 호수에 물결이 일듯이 거대한 연상망의 한쪽에서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 현상은 현재 심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기억 연구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점화 효과가 개념이나 단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존 바그가 동료들과 실시한 실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2세 사이인 뉴욕대학 학생들에게 단어 다섯 개가 뒤섞인 문장을 주고 거기서 단어 네 개를 뽑아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문장 중 절반에 ‘깜빡하다’, ‘대머리’, ‘회색’,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섞어 제시했다. 문제를 다 풀 학생은 복도 끝에 있는 실험실로 가서 다른 실험에 참여해야 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이었다. 연구원들은 각 학생이 반대쪽 실험실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바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과 관련 있는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다른 실험실로 이동했다.

‘관념운동 효과’로도 알려진 실험 결과는 점화 효과의 두 단계가 나타났다. 첫째, 주어진 단어 조합에는 ‘노인’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노인에 대한 개념을 점화했다. 둘째, 이런 생각이 행동을 촉발해, 노인처럼 느리게 걷게 했다. 이 모든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어났다.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단어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문자 하나같이 물었다고 대답하였고, 첫 번째 실험에서 본 단어가 그 뒤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념운동 효과는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는 뉴욕 대학에서 바그가 했던 실험을 거꾸로 실시했다. 실험에서 학생들은 1분에 30걸음을 걷는 속도로 5분 동안 실험실 안을 걸어 다녀야 했는데, 평소 속도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짧은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깜빡하다’, ‘늑대’, ‘외롭다’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훨씬 빨리 알아보았다. 점화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든 모두 일관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4 법원직]

< 보 기 >

우리는 투표를 정책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가치를 반영하는 의도적 행위로 보고, 정책과 무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표소의 위치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애리조나 선거구에서 투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비율은 학교 안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 ① 투표소의 위치가 투표 행위를 점화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학교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겠군.
- ③ 의식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실은 인지하지 못한 요인으로부터 촉발된 것일 수 있겠군.
- ④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투표소 위치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겠군.

• 풀이: 제시문은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점화 효과 이론, 즉 앞서 접한 정보가 다음에 접하는 정보의 해석이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심리 현상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보기>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④의 경우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투표소 위치가 투표 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답]

3문단에 보면 점화 효과가 ‘개념이나 단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①, ②, ③의 서술은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 정답: ④

2. 밑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2024 법원직]

- ① 점화 효과는 단어와 관련된 개념만을 활성화시킨다.
- ② 점화 효과는 일정한 방향만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 ③ 점화 효과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 ④ 점화 효과는 연상망의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풀이: 3문단에 보면, 점화 효과가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③의 진술은 맞는다.

[오답]

① 3문단에서 ‘점화 효과가 개념이나 단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서술이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관념운동 효과는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바르지 않다.

④ 2문단에서 ‘점화된 개념은 또다시 다른 개념을 점화할 수 있고, 이런 활성화는 거대한 연상망의 한쪽에서 주위로 퍼져나간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연상망의 확장을 유도하여 사유의 폭을 넓힌다는 정보는 없다.

• 정답: ③

3. 밑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4 법원직]

- ① 현실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② 설명 대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논의 대상에 대해 구분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어긋나는

반례를 분석하고 있다.

- 풀이: 이 글에서는 '수프'와 '비누', '떡다'의 예, 실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점화 효과 이론을 설명하였다.
- [오답]
- ① 이 글은 가설, 즉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가정이 맞는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글이 아니다.
- ③ 해결 방안이나 문제점 등을 서술한 글이 아니다.
- ④ 점화 효과 이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를 들지 않았다.
- 정답: ②

613p. (5) 유형 복합 문제

[예제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 법원직]

우리는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실에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도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었다.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은 세계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하며 탈진실화가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반증하기라도 하듯 '가짜 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언론사의 오보에서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가짜 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 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가짜 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 뉴스였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은 가짜 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된 가짜 뉴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새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일어나는 가짜 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이전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특징은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매체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 뉴스들은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신문·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포털, SNS 등의 디지털 매체로 옮겨 가면서 쉽게 유통되고 확산된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 뉴스와 관련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한다.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중개 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 업체는 금액에 따라 광고를 배치한다.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이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가짜 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대중을 치밀하게 속인다.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고 자극적인 요

소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짜 뉴스는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 요소를 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1.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광고주와 중개 업체 사이에 위계 관계가 발생한다.
- ② 소비자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게 된다.
- ③ 혐오와 선동을 담은 뉴스로 인해 극단주의가 발생한다.
- ④ 소비자가 높은 금액을 주고 읽어야 하는 가짜 뉴스가 생산된다.

• 해설: 문맥적 추론과 내용 정리 문제이다.

두괄식 구성의 문단이기 때문에 ㉠ 이후의 진술 내용에 정답이 서술되어 있다. 끝에 결론적 진술을 보면 '가짜 뉴스는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 요소를 담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 된다.

• 정답: ③

2.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짜 뉴스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의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짜 뉴스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된 시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사용 매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가짜 뉴스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해설: 정보의 추론적 이해 문제이다.

'가짜 뉴스'가 최근 사회적 논란거리라고 화제 제시한 후, 가짜 뉴스의 개념, 역사, 21세기형의 특징,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가짜 뉴스의 문제점 등을 서술한 글이다.

둘째 문단을 보면 '가짜 뉴스'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따라서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그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①이 정답이 된다.

[오답]

② 둘째 문단에서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③ 셋째, 넷째 문단을 보면 백제 시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가짜 뉴스'의 시대적 특징이 서술되어 있다.

④ 넷째, 마지막 문단을 보면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특징과 매체의 변화, 돈과 결부된 특징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 정답: ①

3. 뒷글을 읽고 나는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짜 뉴스는 현재에도 입소문을 통해서 주로 전파되고 있어.
- ② 탈진실화는 아직까진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과거에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어.
- ④ 가짜 뉴스 현상은 과거부터 반복되어온 만큼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아.

• 해설 : 세부 정보의 확인과 이해 문제이다.
셋째 문단에서 1920년대 관동 대지진 때 있었던 조선인 학살 사건도 가짜 뉴스와 관련된 것임을 말했다 때문에 ③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 ① 넷째 문단을 보면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첫째 문단에서 탈진실화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④ 셋째 문단 끝에서 '최근 일어나는 가짜 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이전의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정답 : ③

614p.

[예제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 법원직]

20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학교라 불리는 교육 기관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각국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몰려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생 수는 1945년 약 8000명이었지만, 2010년 약 350만 명으로 증가했다. 무엇이 학교를 이토록 팽창하게 만들었을까? ㉠ 학교 팽창의 원인은 학습 욕구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학습 욕구 차원에서, 인간은 지적·인격적 성장을 위한 학습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의 지적·인격적 성장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 특히 한국인은 배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의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습에 대한 욕구가 학교를 팽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학교는 산업사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력 양성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훈련받은 인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학교였다. 산업 수준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학교 교육의 기간도 장기화된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산업 기술 수준의 향상은 학교를 팽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학교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치였다. 통일국가에서는 언어, 역사·의식, 가치관, 국가이념 등을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야 했다. 그리고 국민통합 교육은 사교육에 맡겨둘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의무교육제도는 국민통합 교육을 위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통합의 필요는 학교를 팽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학교의 팽창은 현대사회가 학력 사회로 변화된 데에 기인한다. 신분제도가 무너진 뒤 그 자리를 채운 학력제도에서, 학력은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되었다.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경제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과거에는 명문가의 족보가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학력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독점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현대사회의 학력 사회로의 변모는 학교가 팽창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1. 밑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문을 활용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② 특정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특정 현상을 대략적인 수치 자료를 예로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④ 특정 현상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며 현대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해설 : 전개방식과 서술상 특징 파악 문제이다.

이 글의 중심 논지는 학교 팽창의 현상과 원인 분석이다. 역사적 의의나 나아갈 방향 등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④번이 정답이다.

[오답]

- ① 도입 문단에서 "무엇이 학교를 이토록 팽창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② 학교 팽창의 원인을 '학습 욕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③ 첫 문단에서 학교와 학생 수 팽창의 상황을 대략적인 수치 자료(약 ~ 명)로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 정답 : ④

2. 밑글을 읽고 난 후,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 학습 욕구 차원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일 거야.
② 을: 경제적 차원에서, 산업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필요한 훈련된 인력을 기르는 역할을 학교가 담당하기 때문일 거야.
③ 병: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의 가치관, 언어, 역사·의식 등을 국가 구성원에게 가르치는 일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일 거야.
④ 정: 사회적 차원에서, 산업 수준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산업사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 학교이기 때문일 거야.

• 해설 : 정보 이해를 바탕으로 반응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④에서 말한 내용은 사회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설명한 부분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오답]

- ① '지적·인격적 성장을 위한 욕구'는 내적 성장에 대한 욕구와 같은 의미이다.
② '인력 양성 기관의 역할'과 인력을 기르는 역할은 같은 의미이다.
③ '언어, 역사·의식, 가치관, 국가이념 등을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넷째 문단에서 언급하였다.

• 정답 : ④

3. 밑글의 [막스 베버]와 <보기>의 A, B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교 교육이 사회의 평등장치인가에 대해 사회학자 A와 B는 상반된 견해를 가진다. A는 학교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성적을 주고, 그 성적에 따라 상급학년에 진급시키고 졸업시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므로 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본다. 또한 높은 학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개

인은 희소 가치가 높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얻고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반면, B는 상급 학교의 진학은 개인의 능력만을 반영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기존부터 중류층 이상이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상류층일수록 학력이 낮아도 높은 지위에 쉽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 ① A와 달리, 막스 베버는 고학력을 취득한 사람이 저학력을 취득한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 ② B와 달리, 막스 베버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학력보다 부모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A와 막스 베버는 모두 학력을 통해 높은 계층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B와 막스 베버는 모두 높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것이 뛰어난 학력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해설 : 보기 정보와 비교 이해하는 문제이다.

- ③의 진술이 공통된 인식에 해당한다. 막스 베버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면 학력증명, 즉 높은 학력을 가지면 된다고 하였다. <보기>의 A도 학력이 높으면 높은 소득을 얻고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오폐]

- ① 진술 내용 중 A와 막스 베버의 위치가 바뀌었다.
- ② 진술 내용 중 B와 막스 베버의 위치가 바꾸고, 비교의 조사 '보다' 대신 '뿐만 아니라'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막스 베버의 견해와는 무관하다.

• 정답 : ③

616p.

[예제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 법원직]

달에 갈 때는 편도 3일 정도 걸리지만, 화성에 갈 때는 편도 8개월 정도 걸린다. 또 달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지만, 화성의 경우에는 곧바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긴 경우에는 500일이나 머물러야만 지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화성 유인 비행은 500일 내지 1,000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친 우주 비행을 위해서는 물이나 식료품, 산소 뿐 아니라 화성에서 사용할 기지, 화성에 이착륙하기 위한 로켓, 귀환용 우주선 등도 필요하다. 나사 탐사 시스템 부서의 더글러스 쿡에 따르면 그 무게의 합계는 470톤이나 된다. 나사의 우주 탐사 설계사인 게리 마틴은 “이 화물의 운반이 화성 유인 비행에서 가장 큰 ㉠ 문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지구 표면에서 지구 저궤도(지표에서 몇 백 킬로미터 상공의 궤도)로 화물을 올려 보내야 한다. 과거에 미국은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 아폴로 계획에 총 2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한다. 이 계획에 사용된 것은 인류 사상 최대의 로켓 ‘새턴 파이브(V)’이다. 새턴 파이브는 지구의 저궤도로 104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현재, 그 같은 대형 로켓을 만들기는 어렵게 되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다른 용도가 없고 지나치게 거대한 로켓을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미 존재하는 로켓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어떤 임무(비행 계획)가 가장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일이다. 기존 우주 왕복선의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우주 왕복선의 부품과 다른 로켓의 부품을 조합할 수 있는지 등,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거대한 로켓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470톤의 화물은 여러 번 나누어 운반된다. 그리고 지구 저궤도에서 조립한 뒤 화성으로 보내는데, 이때는 많은 양의 화물을 화성까지 운반하는 우주선의 엔진이 문제이다. 현재 사용되는 로켓의 엔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화학 로켓’이다. 이것은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킨 가스를 분출함으로써 추진하는 로켓이다. 화학 로켓은 추진력은 크지만, 열로 에너지가 달아나므로 그만큼 연비가 낮아진다. 그래서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

지구 저궤도 상에 있는 1킬로그램의 화물을 화성의 표면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40킬로그램의 연료가 필요하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요컨대 현재의 기술로는 연비가 낮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게 되어 임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적인 추진 방식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적인 추진 방식이란 태양 전지나 원자로를 사용해 발전한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해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는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으므로 그만큼 연비가 높아진다. 따라서, 전기 추진을 이용하면 화학 로켓보다 연비가 월등히 높아진다. 연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연료가 적어도 된다. 전기 추진을 사용하면 연료를 대폭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 뉴턴 코리아, 2013년 7월 -

1. 밑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두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대상과 관련된 과학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설 : 전개방식과 서술방식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첫 문단에서 달과 화성의 우주 비행의 차이를 말한 뒤, 다음 문단에서는 화성 유인 비행의 어려운 점을 서술하였다. 이후 화학 로켓과 전기적인 추진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 권위자의 의견을 인용한 방식도 나타나지만 관련된 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 ②

2. 밑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성 유인 비행은 왕복 8개월 정도가 걸린다.
- ② 화학 로켓은 추진력이 작고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
- ③ 미국은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 총 470억 달러를 투자했다.
- ④ 전기적인 추진 방식은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아서 연비가 높다.

해설 : 정보의 확인과 추리 문제이다.

끝문단에서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해 추진하는 방법’은 ‘에너지가 열로 달아나지 않으므로 그만큼 연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므로 ④의 진술은 제시된 정보의 사실에 부합한다.

[오폐]

- ① 1문단에서 ‘편도 8개월’이라고 하였다.
- ② 5문단에서 ‘화학 로켓은 추진력은 크지만’이라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과거에 미국은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해 아폴로 계획에 총

25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였다.
정답: ④

3. 밑줄에 따르면,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 ① 대형 로켓을 제작한다.
- ② 우주 비행을 양성한다.
- ③ 연료 소비 효율을 높인다.
- ④ 화물을 여러 번 나누어 운반한다.

해설: 정보를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해결의 단서가 있다. '현재의 기술로는 연비가 낮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게 되어 임무를 실현할 수 없고, 그래서 화성에 가기 위해서는 연비가 높은 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마지막 문단을 더하면 ③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4.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문제의 영화가 드디어 오늘 개봉된다.
- ② 그는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 ③ 출산을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 ④ 연습을 반복하면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게 된다.

해설: 다의어의 문맥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에 쓰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국가 사회적인 해결 거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③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사용된 경우이다.
[옳풀]
① 논란이나 논쟁.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② 귀찮은 일이나 말썽.
④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정답: ③